

|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January 2015 vol.118

이달의 이슈

새해 금융발전과 서울시의 과제
김자봉
2015년 세계경제전망
정성춘

생생리포트

놀이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서울상상나라

곽신숙

인포그래픽스

서울에서 청년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서울경제분석센터

경제동향

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경제통통

FOCUS/ZOOM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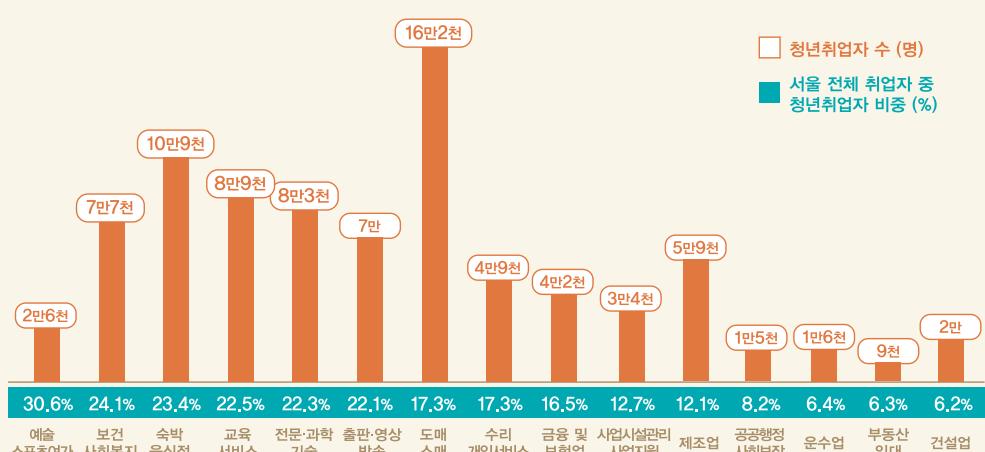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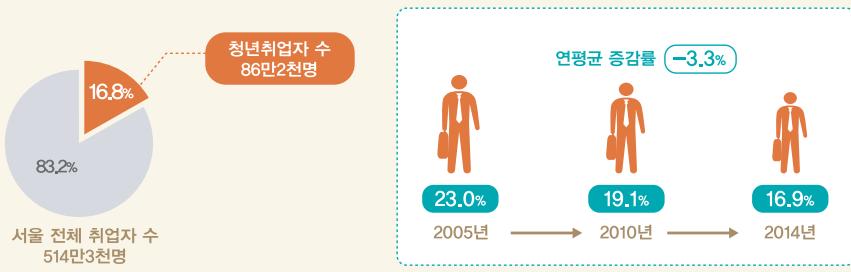
HOT ISSUE

김가영

01

서울에서 청년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청년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16만2천명으로 '도매·소매'이며,
취업자 중 청년취업자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예술·스포츠·여가'로 30.6% 차지



서울경제

2015 vol.118

1

이달의 이슈

- 3 새해 금융발전과 서울시의 과제

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장연구실 연구위원)

- 9 2015년 세계경제전망

정성춘(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실장)

생생리포트

- 17 놀이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서울상상나라

곽신숙(서울상상나라 운영실 수석)

인포그래픽스

- 29 서울에서 청년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경제동향

- 35 요 약

- 37 생 산

- 39 소 비

- 40 고 용

- 43 물 가

- 44 부동산

- 46 금 융

- 54 수출입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정의영(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경제통통

- 61 FOCUS/ZOOM IN/HOT ISSUE

김가영(서울특별시청 경제진흥실)

새해 금융발전과 서울시의 과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장연구실 연구위원

금융교육센터 director

jbkим@kif.re.kr



1. 새해 금융발전을 위한 7가지 과제

새해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 과제는 다음과 같이 7개로 지적될 수 있다. ①해외진출확대, ②자본시장 질적 발전, ③가계부채 완화 및 부동산 중심 가계자산구조의 전환, ④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⑤level playing field 개선, ⑥체계적인 학교금융교육의 도입, ⑦금융감독당국의 시장지킴이 기능 강화 등이다.

첫째,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해당 금융회사만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사업에 해당한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실시간 글로벌 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1960년 초반 해외진출 경험이 없는 수출기업을 돋기 위해 설립된 무역진흥공사

* 본 원고는 “2015년 금융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한국금융연구원 2015년1월)를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자문위원, OECD Research Committee 위원, 금융학회·은행법학회 이사.

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었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도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1960년대 수출기업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무역진흥공사의 경험을 살려 공적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원하는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증권사들의 투자은행업무의 질적 발전이 필요하다. 국내 증권사들의 투자은행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와 증권사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국내 증권사들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개별 증권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이는 증권사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기반으로 활용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증권사의 규모 확대 역시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상으로 제한된 사업지주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지주회사로 하여금 M&A 등 투자은행업무를 영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2년 기준 가계의 자산구성에서 비금융자산(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미국은 31.5%와 68.5%, 일본 40.9%와 59.1%인 반면, 우리나라는 각각 75%와 25%이다. 이처럼 가계자산구성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한 부동산 의존 상황에서는 가계가 금융자산을 보유할 금전적 여력이 없으며, 이는 결국 금융산업의 발전 여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자산의 금융자산으로의 자산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동시에 은퇴 후를 대비하는 금융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주회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주회사는 사업기구일뿐 아니라 정책기구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정책기구로서의 중요한 기능은 자회사 건전성 유지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책임을 가져야(source of strength doctrine)하는데, 이 제도 도입으로 은행자회사 수가 많을수록 건전성이 더 좋았다는 결과가 이루어졌다. 국내에도 이러한 건전성유지 책임원리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자회사 은행 인수 후 통폐합하여 왔는데, 건전성유지 책임원리를 전제로 할 때, 이는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다섯째, level playing field(동등한 기회의 원칙)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간 일부 금융부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level playing field를 제한하여 왔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약자를 강자로 변모시키는 생산적 보호보다는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는 약자로 남도록 만들거나 부실, 불법 및 불공정행위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상업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은행이 모두 동일한 기준의 건전성감독을 받는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은행은 상업은행과 비교하여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건전성을 갖추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지원이라는 이유로 낮은 건전성기준을 요구한다면, 이는 자격미달의 금융회사가 시장에 진입하여 오히려 서민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여섯째,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과 소비자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내 체계적인 금융교육 교과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역량은 한 두 번의 특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정규교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본격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 현행 고등학교 교과 중에 경제과목이 있으나, 이는 경제일반에 치우쳐 있고 체계적인 개인재무(personal finance)는 담지 못하고 있다. 개인재무는 청소년에서 은퇴에 이르는 생애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소득, 소비, 저축, 투자, 기부 등의 금융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일곱째, 감독당국의 시장지킴이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시장금융이 발전할수록 사업모델은 복잡해지는 한편, 불공정 및 부정행위는 점차 정교해지는 현상이 빚어진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다.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의 감독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적 및 민사적 권한을 갖고 있다. 심지어 영국 감독당국은 형사기소권도 갖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장남용(market abuse)행위에 대한 낮은 수준의 금전적 과징금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는데, 국내 감독당국의 제재 권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서울시의 금융여건과 개선방안

서울시의 금융이 우리나라 전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서울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7가지 과제는 서울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이 가운데 몇 가지를 간단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서울 소재 기업의 해외진출과 함께 해외 기업의 서울투자 즉, 해외투자유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해외진출뿐 아니라 투자유치실적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지난 2007-2012년간 해외투자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에는 1,700건이 넘었지만 2012년에는 1,200건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투자규모도 2007년 65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27억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58억달러 수준이다. 산업부문별로 보면, 농수축산및광업,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및건설업 분야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해외투자 유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표 1> 서울시의 해외투자유치 실적

	건수	투자액 (백만달러)	농수축산업 및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2007	1,623	5,154	4	3	146	266	1,450	4,838	23	47
2008	1,721	6,464	11	4	130	355	1,567	5,967	13	138
2009	1,306	4,397	6	1	111	414	1,173	3,976	16	6
2010	1,314	2,678	5	2	121	432	1,176	2,241	12	4
2011	1,207	4,114	3	0	121	385	1,066	3,706	17	23
2012	1,211	5,811	2	4	120	1,035	1,082	4,771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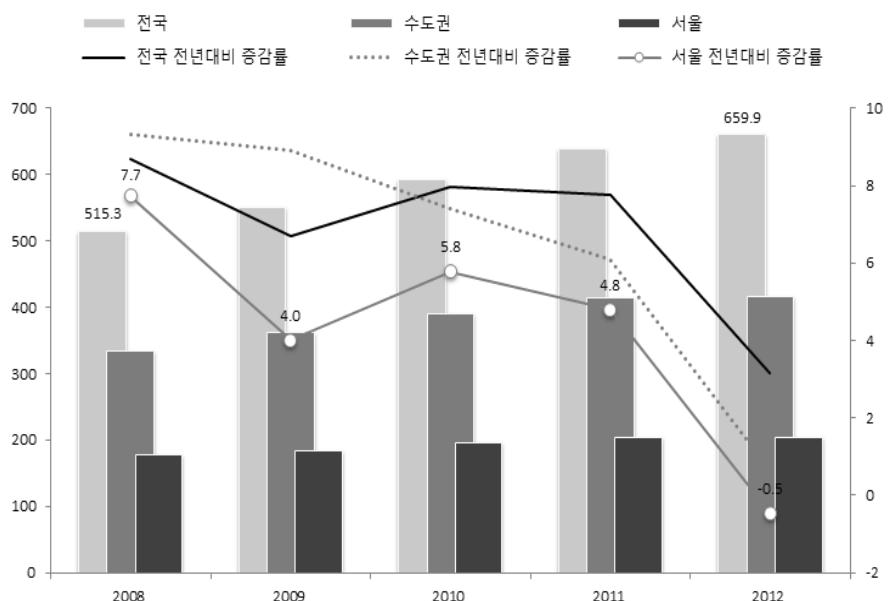
출처: 서울통계

해외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듯이, 해외기업 또한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현지 글로벌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투자자가 서울 및 국내 금융시장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표 2> 서울지역 가계대출의 비중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도권 대비	54.0	53.2	50.8	50.0	49.4	48.9
전국 대비	34.7	34.4	33.5	32.8	31.9	30.8

출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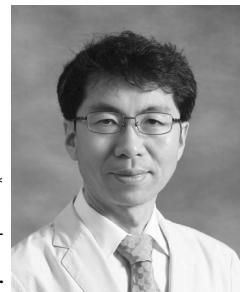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그림 1> 가계대출의 전국, 수도권, 서울 지역 추이

둘째, 가계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의존현상 완화 필요성 관점에서 볼 때, 2008~2012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지역 가계대출의 추이는 다소 다행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 대비 비중은 2007년에 54%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48.9%로 하락하였다. 전국 대비 비중은 2007년 34.7%에서 2012년 30.8%로 하락하였다. 이는 그 만큼 분석대상 기간 동안 서울지역의 가계대출 확대가 상대적으로 자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1>에 의하면, 가계대출의 확대는 서울 혹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더 크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계자산의 부동산의존 완화 측면에서 볼 때, 서울지역의 가계대출 안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해야 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은 대부분은 연1회 한 시간짜리 특강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우에는 심지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를 찾는 저소득층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교육청이 주도하여 금융교육을 학교교육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 세계경제전망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실장

jung@kiep.go.kr

1. 2015년 세계경제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유가하락이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놓고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경제에 기회요인 혹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기업경영 나아가 국가경영에 매우 중요하다.

2015년 세계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2014년 세계경제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세계경제는 선진국 주도로 회복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한 회복세를 보였다. 유럽과 일본경제의 부진이 주요 원인이었다. 미국경제는 이와 달리 호조세로 전환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중국과 브라질, 러

* 본 원고는 정성춘 외(2014)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히토쓰바시대학 경제학 박사

- 최근연구: 2015년 세계경제전망(2014) 등

시아 등 거대신흥국 경제의 성장세도 주춤하였다. 이들 거대신흥국 경제도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욱 늦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2014년 세계경제는 약 3.1% 전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세계경제는 전년에 비해 약간 높은 3.5% 전후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의 빠른 회복이 세계경제 성장세를 주도하는 성장패턴이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는 전년의 약 2.1%보다 높은 2.7% 전후의 성장세가 전망된다. 미국경제가 2분기 이후 강력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3.0%를 넘는 높은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미국경제에는 아직도 불확실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성장률을 약간 낮춰 전망하였다. 유럽 및 일본경제의 지지부진한 회복세는 금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 지역의 성장률은 약 0.9%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약 7.0%, 브라질은 0.9%, 러시아는 0.0%의 성장세가 전망된다. 다만 이들 신흥국에 대해서는 하방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세는 러시아나 브라질과 같은 자원 의존형 신흥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들 국가의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미국경제 전망

미국경제는 2014년 2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2분기와 3분기의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넘는 4.6%(연율)와 5.0%를 기록하였다. 2분기의 높은 성장률이 1분기에 -2.1% 성장한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3분기에도 5.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보면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미국경제는 소비와 투자의 회복이 주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월 20만개를 넘는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고 있고 실업률도 '09년 10월 10% 수준에서 '14년 11월 5.8%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의 개선이 소비개선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주택판매도 '14년 3월 이후 상승세에 있고 주택가격지수도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주택시장도 개선되고 있다. 주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도 소비회복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회복으로 산업 활동도 회복되고 있는데 '13년 말 이후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ISM 지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와 생산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2015년 미국경제는 2.7% 수준의 성장(기준시나리오: Baseline)이 전망된다.

다만, 미국경제에는 다음과 같은 불확실 요인이 있다. 첫째는 유가하락이다. 유가하락은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소득효과에 의한 소비증가를 유발한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유가하락은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사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이 분야에 대한 투자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 더구나 유가하락이 노동소득의 증가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기업이윤을 증가시키는데 그칠 경우 중기적으로 충분한 성장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유가하락이 미국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 둘째는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따른 경기위축 리스크이다. ‘14년 이후 연준에 의한 통화공급량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데 만일 미국의 경기회복이 팽창적인 통화정책이라는 정책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면 통화공급의 급속한 감소는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산유국의 순저축이 감소하게 되면 산유국 오일달러에 의한 미국 국채매입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미국 국채의 수익률 곡선을 상방으로 이동(=금리상승, 국채가격하락)시켜 경기회복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겹치게 되면 추가적인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3. 유럽 및 일본경제 전망

유럽과 일본경제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 2015년 유럽과 일본은 모두 1% 미만의 저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유로존의 2014년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2% 하락하였다. 유가하락에 따라 에너지 관련 상품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물가 하락세는 유럽경제에 디플레이션의 우려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럽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경우 ECB는 보다 적극적인 양적완화정책(예: 연간 5,000억에서 1조 유로 규모의 국채매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완화정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유럽경제가 아직도 디레버리징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고 금융시장의 분절화로 인하여 돈을 푼다 하여도 이 돈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취약국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가하락은 유로화 약세를 유발하고 가계소득의 개선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기 때문에 유럽의 실물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아베정부의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2014년 4월에 실시한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예상외로 컸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아베 총리는 2015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던 소비세 인상을 2017년 이후로 연기하였다. 또한 2014년 10월에는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아베정부의 양적완화정책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인데 문제는 이러한 완화적 정책이 성장세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있다. 사실 일본경제의 문제는 돈의 부족에 있지 않다. 가계가 소비를 억제하고 기업이 해외투자를 늘리는 것은 통화량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구구조의 변화, 즉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요인이 있고 이것이 장래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면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법 없이 통화량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지속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본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가, 금리, 환율 등의 금융변수의 개선이 임금, 소비, 고용, 생산, 수출 등 실물변수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중국 및 신흥국경제 전망

2014년 중국경제는 소비판매 및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세가 하락하면서 7.5%의 목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7.4%, 2분기 7.5%, 3분기 7.3%를 보였는데 이는 2013년의 7.7%에 비해 낮은 성장세이다.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낮아지고 있는 원인은 성장을 주도해 온 고정자산투자가 '09년 30.5%에서 '13년 19.6%, '14년(1-11월) 15.8%로 급격히 하락해 왔기 때문이다. 고정자산투자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개발투자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중국경제는 7.0%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기반이 강화되면서 과잉생산능력 억제와 신규채무증가 억제라는 구조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적으로는 1,0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또한 경제규모 자체가 커지는 Base Effect로 인하여 1%p 경제성장의 고용창출효과가 '12년 164만개에서 '13년 170만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중국정부는 2015년에 7.0%의 성장목표를 설정하여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니부양책을 시행하고 특정산업(예: 철도, 민생, 환경에너지, 제조업 고도화) 육성을 위한 미시적인 산업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하락은 중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본다. 중국은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유가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은 가격경쟁력과 수익성 개선으로 중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신흥국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여건에 직면하고 있다. 변화된 국제여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자원가격의 하향안정화이고 둘째는 글로벌 유동성의 양적 및 질적 흐름의 변화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와 브라질 등 자원의존형 경제성장모델을 가지고 있는 신흥국은 유가를 비롯한 자원가격의 하락으로 2015년에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는 경제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인상이 가세하여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면 이들 신흥국이 받을 타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5. 맷음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5년의 세계경제여건은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의 입장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요인으로는 주변국 통화의 환율변화일 것이다. 특히 엔화와 위안화의 환율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는 기업뿐만 아니라 서울시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변국 통화의 환율변화는 서울을 방문하는 주변국 관광객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베총리는 총선에서의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양적완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이로 인해 엔화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유가가 하락하면서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개선될 것이고 따라서 양적완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엔화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가하락으로 신흥국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엔화강세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 위안화는 아직 환율이 완전히 자유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화 대비 환율의 변동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일본인 관광객보다는 중국인 관광객의 서울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중국인 관광객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엔화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관광객이 계속 서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매력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리수준의 상승 가능성도 서울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에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의 금리도 올리는 효과를 가진다. 그럴 경우 부채가 많은 우리나라 가계의 금리부담이 높아지고 이는 소비, 투자와 같은 실물경제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금리가 올라갈 것에 대비하여 그 영향과 대책을 사전에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정성춘 외, “2015년 세계경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11월

생
생
리
포
트

SEOUL ECONOMIC BULLETIN

생생리포트

■ 놀이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서울상상나라

곽신숙(서울상상나라 운영실 수석)

놀이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서울상상나라

곽신숙 수석
서울상상나라 운영실
nangea2@hanmail.net

I. 서울상상나라 개요

1. 추진배경 및 기본개념
2. 전시
3. 교육프로그램

II. 서울상상나라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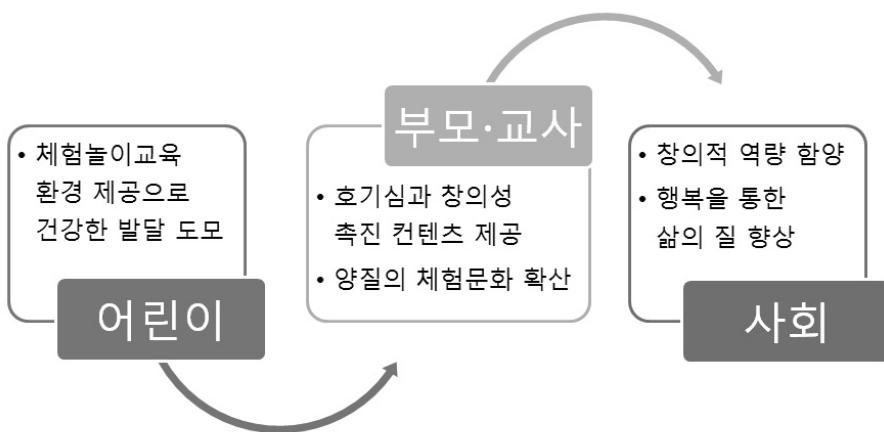
1. 운영 현황
2. 발전 방향

I. 서울상상나라 개요

1. 추진배경 및 기본개념

부모가 아이들을 마음 편안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 중의 하나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정작 부모가 아이를 돌봐야 할 시간에는 서울시 내에 아이와 함께 가서 즐길 수 있는 교육적인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상상나라는 창의적인 체험 전시와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의 건전한 삶을 지원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출발했다.

2008년부터 서울시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5월 2일 개관, 현재까지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공간이다.



<그림 1> 서울상상나라 건립 계획

서울상상나라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체험하고 배우며,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합체험문화시설로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단독 건물이라는 점, 도심 속에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인근에 아리수홍보관, 서울시민안전체험관, 키즈오토파크 등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교육기관이 밀집해 있는 점 등은 시민들이 서울상상나라를 찾는 데 있어서 지리적 이점으로 작용했다.

2. 전시

서울상상나라는 ‘행복한 놀이가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라는 주제 아래 총 10개 영역에 150여점의 체험전시물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서울상상나라 개념 및 구성전략

과학놀이(3F)



문화놀이(3F)



이야기놀이(2F)



상상놀이(2F)



아기놀이터(2F)



자연놀이(1F)



예술놀이(1F)



공간놀이(1F)



기획전: 뱅글뱅글 동그라미(1F)



감성놀이(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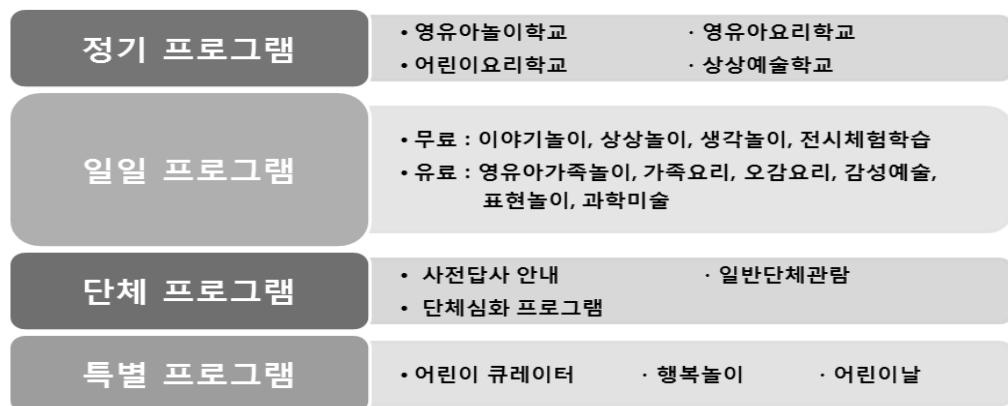


기타; 생각놀이터(2F)



3. 교육프로그램

서울상상나라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시 체험 이외의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연령, 주제, 일시에 따라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되며, 아동교육 전문가들의 진행으로 이색적인 놀이와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그림 3> 서울상상나라 교육프로그램



일일
프로그램



단체 & 특별
프로그램



II. 서울상상나라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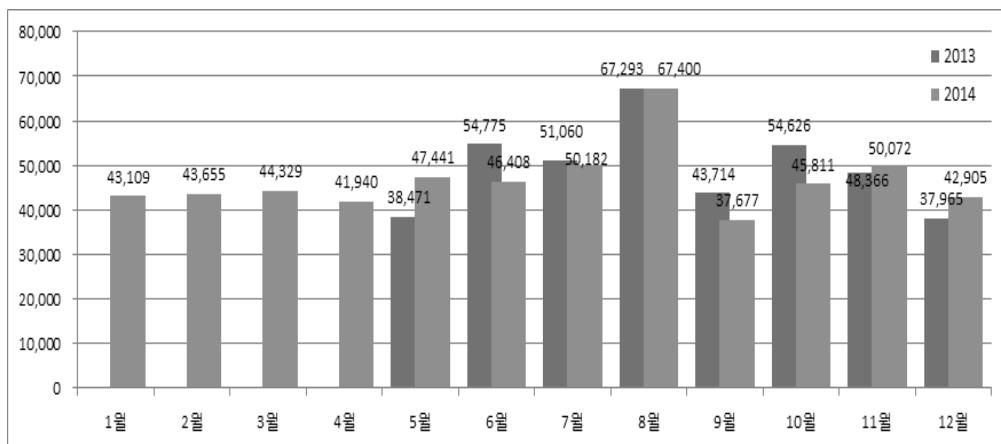
1. 운영 현황

서울상상나라는 서울시가 건립 및 사업의 주체이며, 체험관 운영과 시설관리 부문을 이원화하여 외부 기관에게 위탁운영하는 체제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는 전문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기능별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민관협력의 새로운 상생 모델을 창출해 낸 사업이다.



<그림 4> 서울상상나라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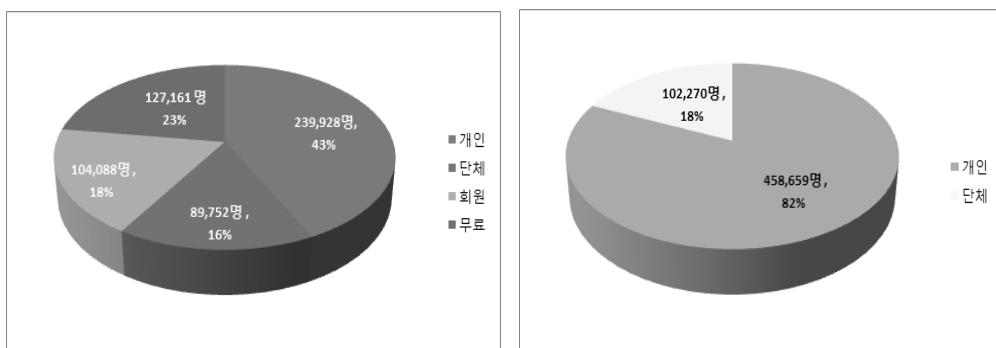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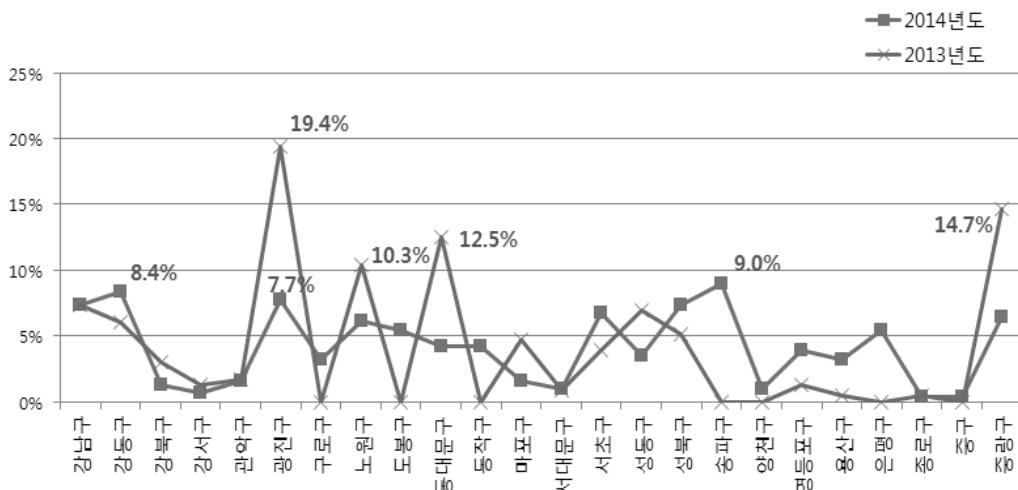
<표 1> 서울상상나라 월별 입장객 현황



2013년 5월 2일 개관한 이후의 입장객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8개월동안 약 39만명이 관람했고, 2014년도에는 56만명이 입장해 일평균 1,821명의 시민들이 관람을 하였다. 이는 서울상상나라가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해 일 최대 2,500명으로 인원제한을 하고 있고, 지난해 4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볼 때 제한 이용객의 73%가 매일 관람을 한 성공적인 운영사례로 평가된다.

여름방학 기간 중 서울상상나라의 관람객 7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개관연도에는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등 대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부터의 방문이 많았으나, '14년도에는 구별 방문자 수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역에서 방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서울상상나라가 명실공히 서울시 대표적인 체험문화기관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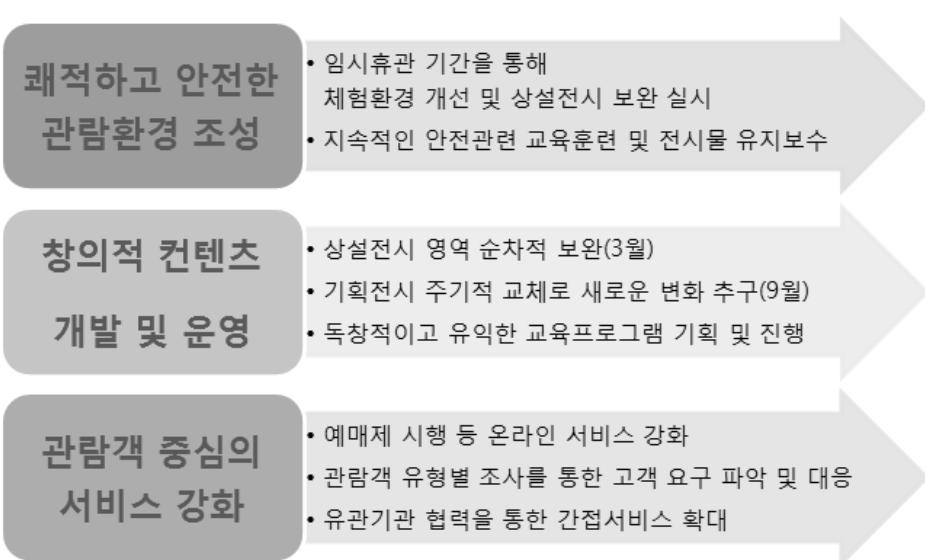
<표 2> 서울상상나라 구별 관람객 비율



서울상상나라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6개월 이상의 성인과 어린이는 모두 4천원(단체는 3천원)에 해당되는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36개월 미만 영유아,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족 등의 무료인원이 증가하여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또 개인과 단체의 비율에서도 개인이 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모두 서울상상나라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기관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2. 발전 방향



<그림 5> 2015년도 서울상상나라 중점 추진계획

서울상상나라는 어린이를 동반한 관람객이 주요 대상이므로 무엇보다도 관람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도는 개관 3차년도이므로 3월 신학기 비수기 기간 중 11일간 임시휴관하여 체험관 내부 환경개선 및 상설전시 <자연놀이> 영역 교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서 살아나갈 어린이들의 성장에 발맞춰 교육적인 기관도 함께 변모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기적인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교체 이외에 연중 여타 기관과는 차별화된 독창적인 프로그램, 어린이 별달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데 일조할 것이다.

아울러 많은 관람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그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관람객 조사, 회원 행사, 상상나라 극장 및 대공원 내 시설 연계 입장 등의 실시로 관람객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
포
그
래
픽
스

SEOUL ECONOMIC BULLET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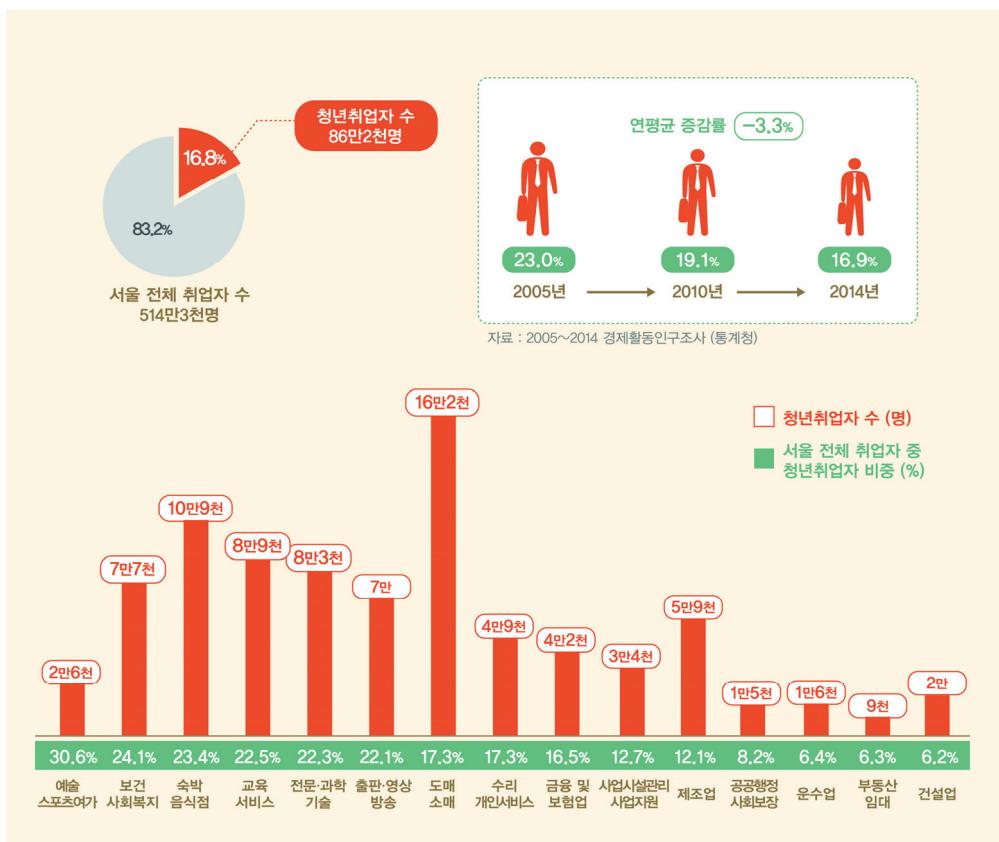
인포그래픽스

■ 서울에서 청년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박희석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센터장)
장윤선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서울에서 청년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청년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16만2천명으로 '도매·소매'이며,
취업자 중 청년취업자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예술·스포츠·여가'로 30.6% 차지**

■ 서울의 청년취업자는 서울 전체 취업자의 16.8%(86만2천명)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서울 전체 취업자 수는 514만3천명이며, 그 중 16.8%인 86만2천명은 청년취업자
- 청년취업자의 비중은 과거 10년간 2005년 23.0%에서 2010년 19.1%, 2014년 16.9%로 연평균 3.3% 감소하는 추세

■ 청년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매·소매업',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예술·스포츠·여가'

- 서울에서 청년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매·소매'로 16만2천명이며 그 다음으로는 '숙박·음식점' 10만9천명, '교육·서비스' 8만9천명, '전문·과학·기술' 8만3천명 순
- 서울 전체 취업자 중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예술·스포츠·여가'로 30.6%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보건·사회·복지' 24.1%, '숙박·음식점' 23.4% 순

〈표 1〉 10년간 서울 청년취업자 변화

(단위: 천명, %)

항목	2005	2010	2014	연평균 증감률
취업자 수	1,124	945	872	-2.8
비중	23.0	19.1	16.9	-3.3

주: 청년취업자는 만15세~29세

자료: 2005~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서울에서 청년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표 2> 2014년 상반기 연령별/성별 서울 취업자

(단위: 천명, %)

항목	합계	남자	남자 비중	여자	여자 비중
전체 취업자	5,143	2,882	56.0	2,261	44.0
15~29세	862	356	41.3	505	58.6
30~39세	1,269	758	59.7	511	40.3
40~49세	1,267	750	59.2	517	40.8
50~59세	1,152	657	57.0	495	43.0
60세 이상	593	361	60.9	232	39.1

자료: 2014 상반기 지역별고용고사 (통계청)

〈표 3〉 2014년 상반기 산업별 서울 청년취업자

(단위: 천명, %)

항목	서울 전체 취업자		서울 청년취업자 수		
	취업자 수	비중	취업자 수	서울 전체 취업자 중 청년 취업자 비중	
제조업	488	9.5	59	6.8	12.1
건설업	322	6.3	20	2.3	6.2
도매 및 소매업	937	18.2	162	18.8	17.3
운수업	251	4.9	16	1.9	6.4
숙박 및 음식점업	466	9.1	109	12.6	23.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17	6.2	70	8.1	22.1
금융 및 보험업	255	5.0	42	4.9	1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2	2.8	9	1.0	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2	7.2	83	9.6	22.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67	5.2	34	3.9	12.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82	3.5	15	1.7	8.2
교육 서비스업	396	7.7	89	10.3	22.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19	6.2	77	8.9	2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5	1.7	26	3.0	30.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84	5.5	49	5.7	17.3
기타 제외 항목	60	1.2	2	0.2	3.3
합계	5,143	100.0	862	100.0	16.8

주: 청년취업자는 만15세~29세이며 대상 인원이 작은 산업(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

자료: 2014 상반기 지역별고용고사 (통계청)

SEOUL ECONOMIC BULLETIN

경제동향

■ 요 약

■ 생 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 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 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 가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 응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정의영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요 · 약 | 11월 서울의 경제동향

생 산

- 서울의 11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9.5로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
- 11월 제조업 출하·재고 지수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 9.8% 증가하여 경기하강기

소 비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2,269억원으로 전국(6조6,167억원)의 33.7%를 차지
- 11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7% 감소,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

고 용

- 서울의 11월 취업자는 519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1천명(0.8%)이 증가
- 서울의 11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증가, 실업률은 3.8%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

물 가

- 2014년 1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9.5(2010년=100.0)로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

부 동 산

- 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은 종로구(0.45%), 서대문구(0.25%)와 금천구(0.21%)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09% 상승. 강남지역(0.07%), 강북지역(0.12%) 모두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11월 주택전세가격은 종로구(1.09%), 중구(0.48%), 강남구(0.54%) 중심으로 전월대비 0.29% 상승. 강북(0.29%), 강남(0.28%) 모두 전월대비 상승

금 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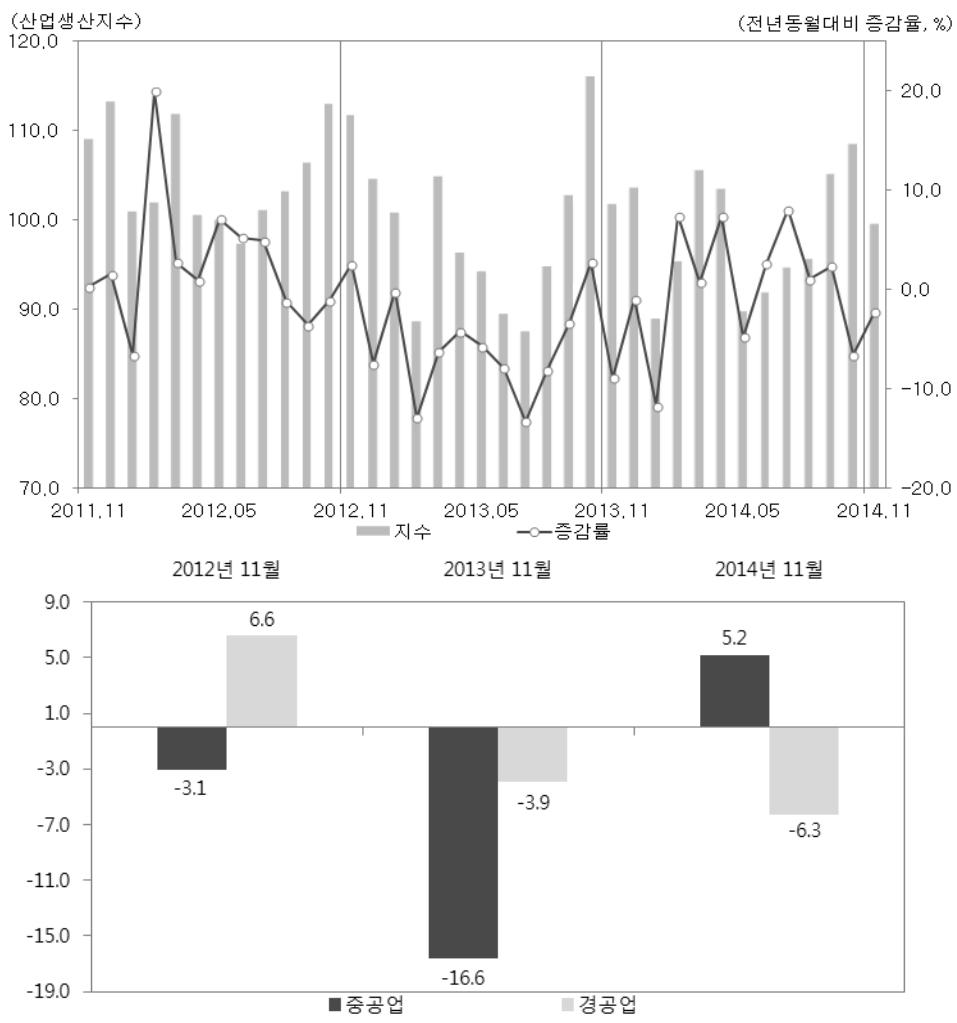
- 서울의 11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90조 2,970원으로 전월대비 0.54% 감소. 가계대출은 188조 2,034억원으로 전월대비 1.1% 증가
- 서울의 11월 신설법인 수는 2,155개로 전월대비 10.9% 감소
- 서울의 11월 부도업체 수는 16개로 전월대비 27.3% 감소
- 서울의 11월 보증금액, 보증지원건수 전월대비 각각 39.9%, 32.8% 감소

수 출 입

- 서울의 11월 수출은 48.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11월 수입은 112.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품목별로는 반도체,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생 · 산 |

- 서울의 2014년 11월 제조업생산지수 99.5(201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
 - 공업구조별로 중공업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 경공업은 6.3% 감소
 - 제조업 부문별로 전년 동월 대비 전기장비(89.8%), 종이제품(19.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7.3%) 등 증가, 의료정밀과학(-24.8%), 기계장비(-20.9%), 의복 및 모피(-5.9%) 등 각각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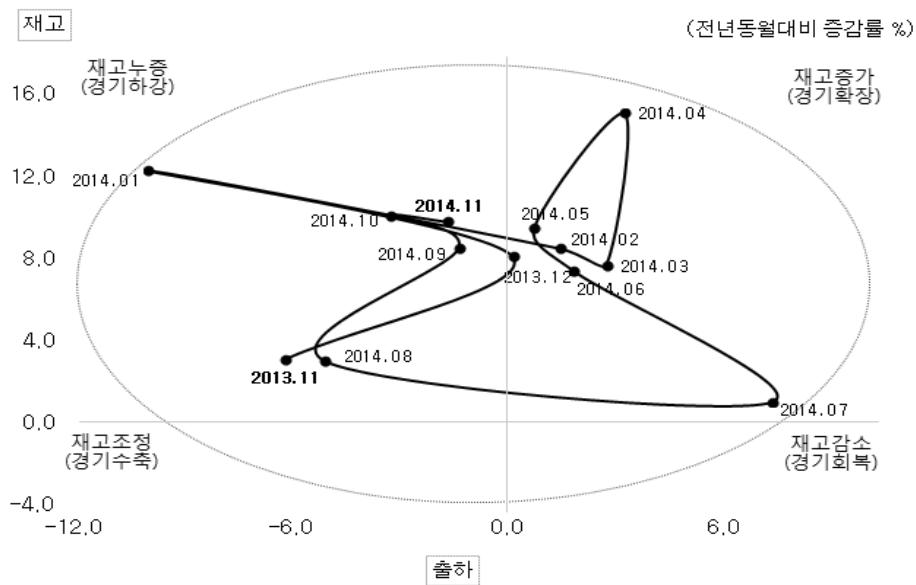
| 출하 · 재고 순환 |

■ 서울의 11월 제조업 전년 동월 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경기하강기

- 서울의 11월 출하지수는 101.4(2010=10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
- 서울의 11월 재고지수는 129.4(2010=100.0)로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
- 출하 감소, 재고 상승하여 경기하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 · 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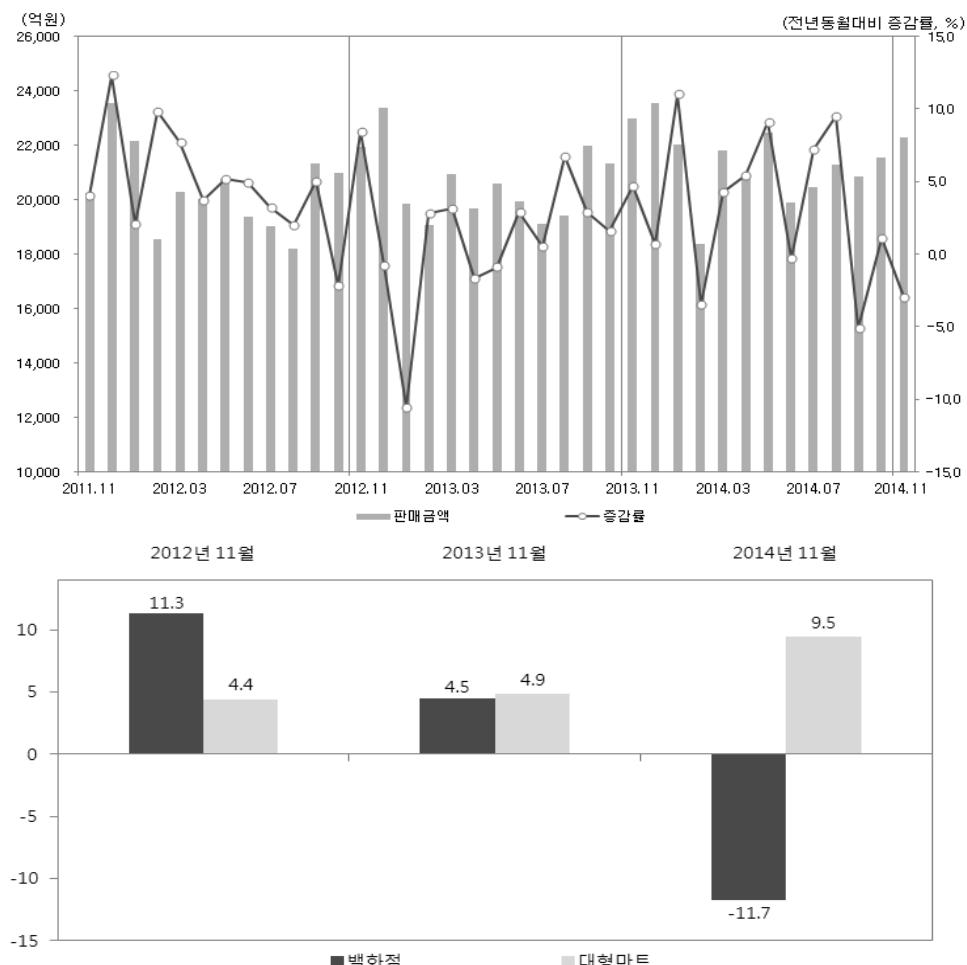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출하 · 재고 증감률 추이

| 소·비 |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2,269억원으로 전국(6조6,167억원)의 33.7%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1조1,965억원으로 전국(2조7,456억원)의 43.6%,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305억원으로 전국(3조8,711억원)의 26.6%를 차지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0.1로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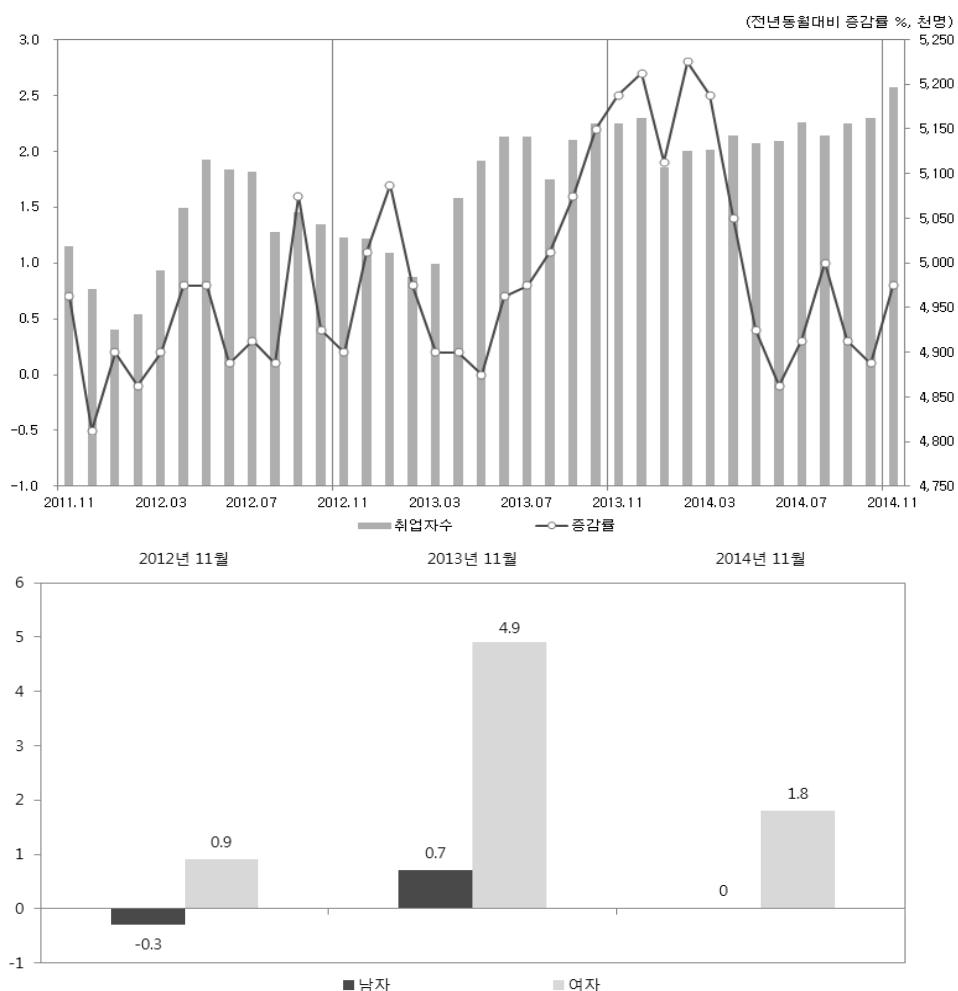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 취 · 업 · 자 |

■ 서울의 11월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

- 서울의 11월 취업자는 519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1천명(0.8%)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동일, 여자는 232만6천명으로 4만명(1.8%) 증가
-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업 10만3천명(7.5%), 건설업 1만5천명(4.7%)이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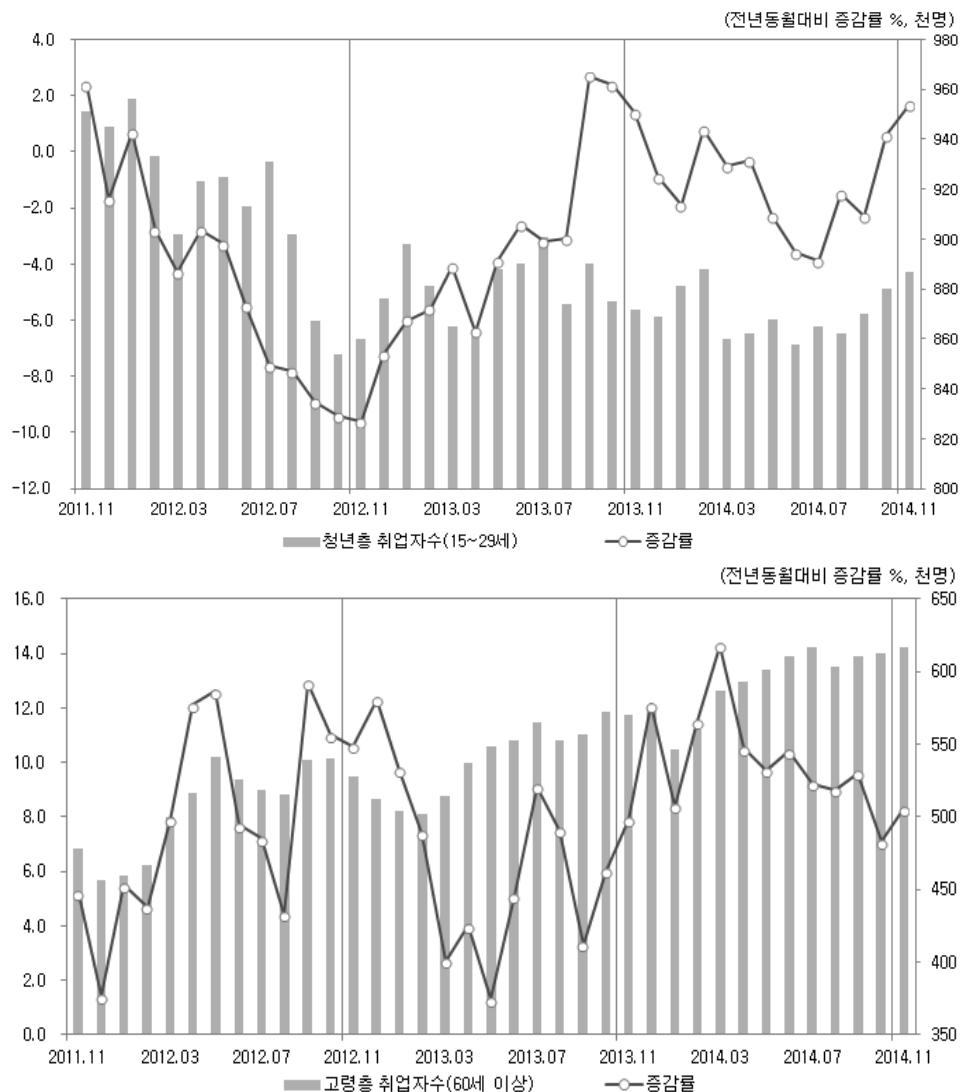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 서울의 11월 청년층(15세~29세)과 고령층(60세 이상) 증감률은 플러스 증가세

- 서울의 11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8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
- 서울의 11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61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청년층의 취업 증감률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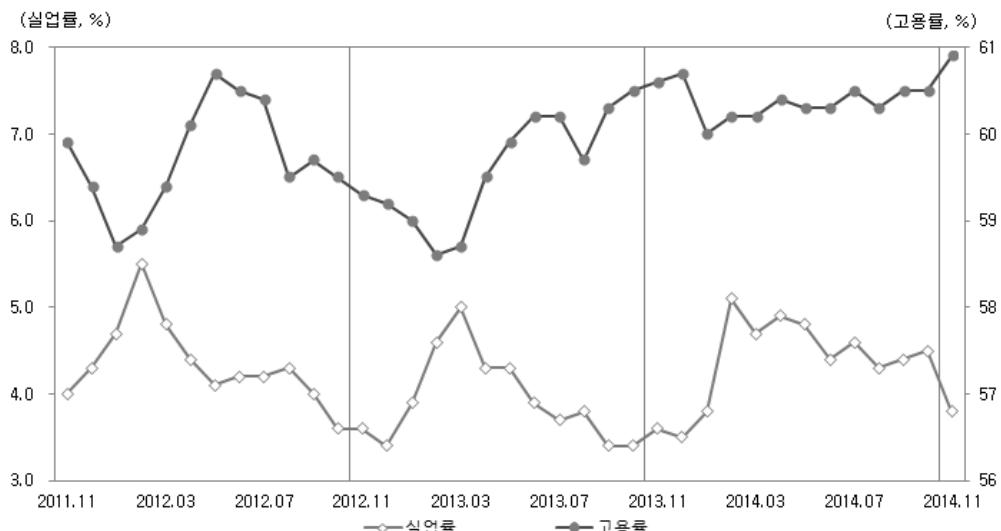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 서울의 11월 고용률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11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2%로 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 여자는 52.3%로 0.7%p 증가
- 2014년 11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60.8%)보다 0.1%p 높은 수준

■ 서울의 11월 실업률 전년 동월 대비 상승,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11월 실업자는 20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천명(7.1%)이 증가
- 실업률은 3.8%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1%로 전년 동월 대비 0.2%p 감소, 여자는 3.5%로 0.8%p 상승
- 2014년 11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1%)에 비하여 0.7%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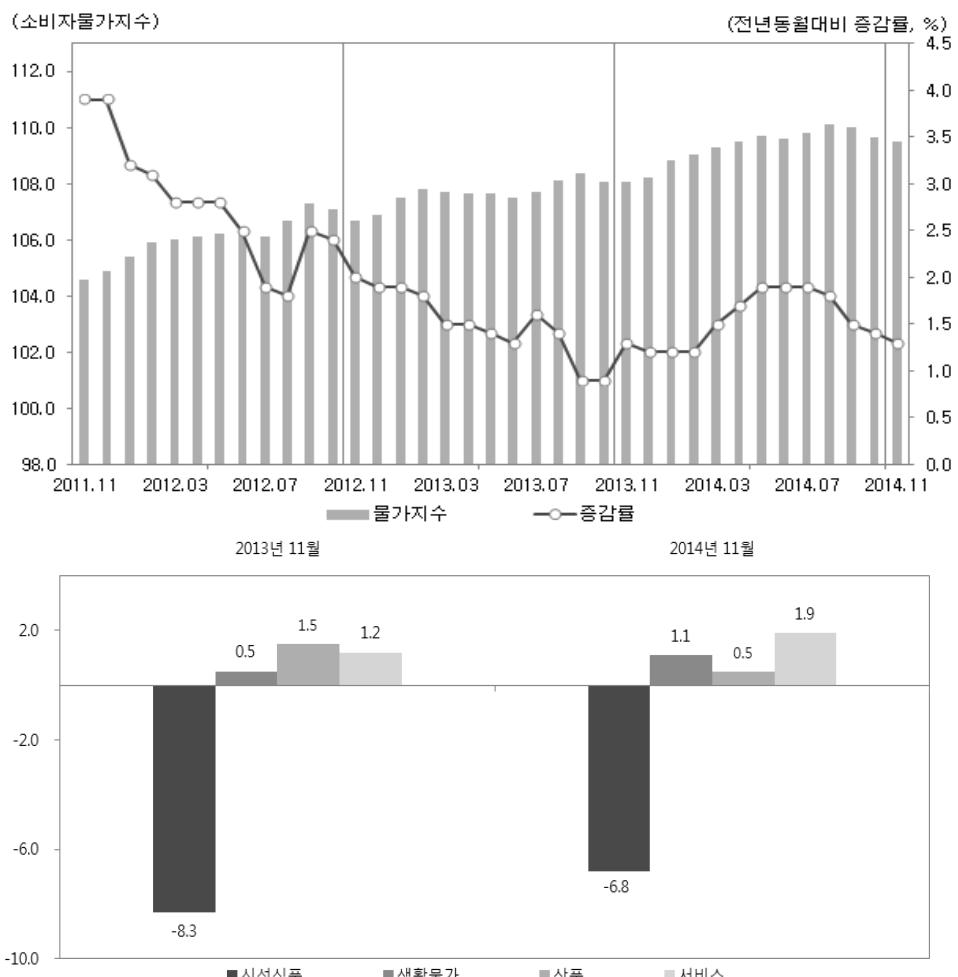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 서울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

- 2014년 1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9.5(2010년=100.0)로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교통(-2.7%), 오락·문화(-0.6%), 주류 및 담배(-0.4%), 통신(0.0%)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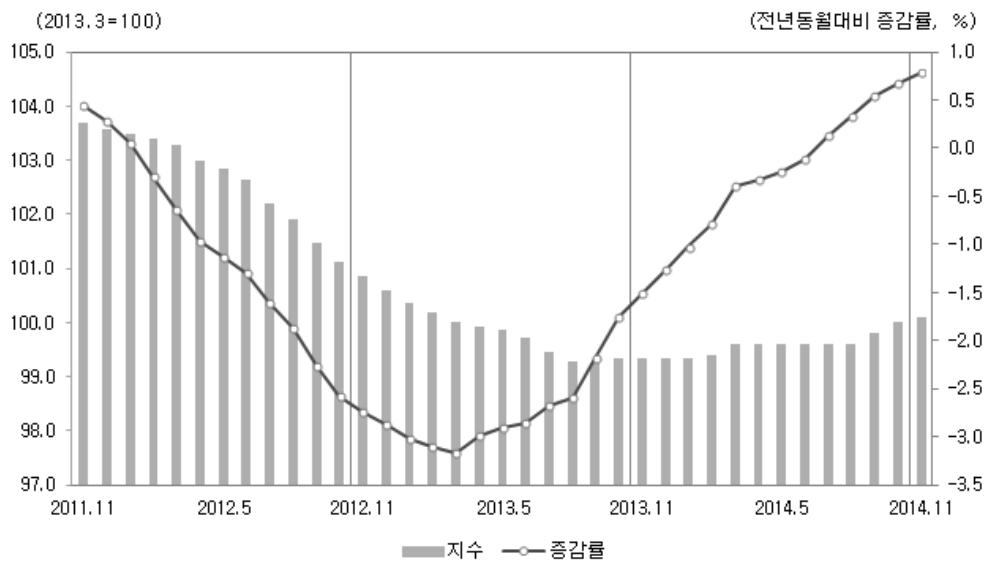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전월대비 0.09% 상승

- 강남지역(0.07%), 강북지역(0.12%) 모두 전월대비 상승
- 주요 상승지역: 종로구(0.45%), 서대문구(0.25%), 금천구(0.21%), 동작구(0.14%)
- 주요 하락지역: 용산구(-0.11%)
- 아파트(0.10%), 연립주택(0.11%), 단독주택(0.04%) 모두 상승

■ 전국의 11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20% 상승

- 광역시(0.37%), 수도권(0.12%), 기타지방(0.20%) 모두 전월대비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11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증가, 매매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

- 평당 매매가격(1,654.7만원)은 전월(1,653.8만원)대비 0.05% 증가
- 매매거래건수(8,469건)는 전월(10,866건) 대비 22.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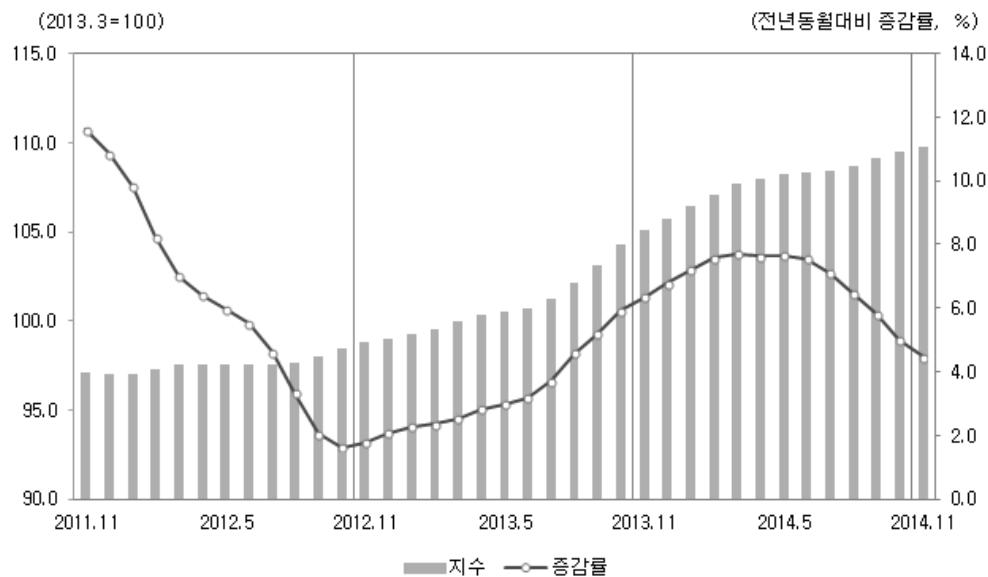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11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29% 상승

- 강북지역(0.29%), 강남지역(0.28%) 모두 전월대비 상승
- 주요 상승지역: 종로구(1.09%), 중구(0.48%) / 강남구(0.54%), 서초구(0.39%)
- 아파트(0.36%), 연립주택(0.21%), 단독주택(0.14%) 모두 상승세 지속

■ 전국의 11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28% 상승

- 광역시(0.29%), 수도권(0.33%), 기타지방(0.12%) 모두 전월대비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11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 전세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

- 평당 전세가격(1,041만원)은 전월(1,035만원)대비 0.6% 증가
- 전세거래건수(11,722건)는 전월(14,390건) 대비 18.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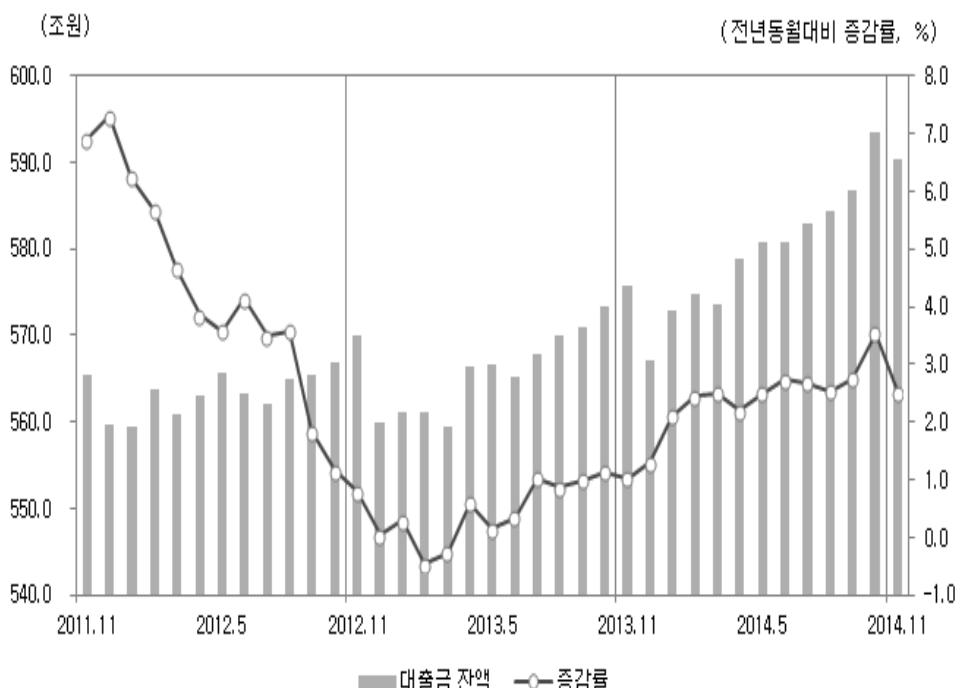
| 가 · 계 · 대 · 출 |

■ 11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0.54% 감소

-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590조 2,970억원)은 전월(593조 5,128억원)대비 0.54% 감소
- 그 중 예금은행(490조 8,495억원)과 비예금은행(99조 4,475억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7% 증가, 6.9% 감소

■ 11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0.67% 증가

- 전국의 전체 대출금 잔액(1,623조 3,724억원)은 전월(1,612조 5,388억원)대비 0.6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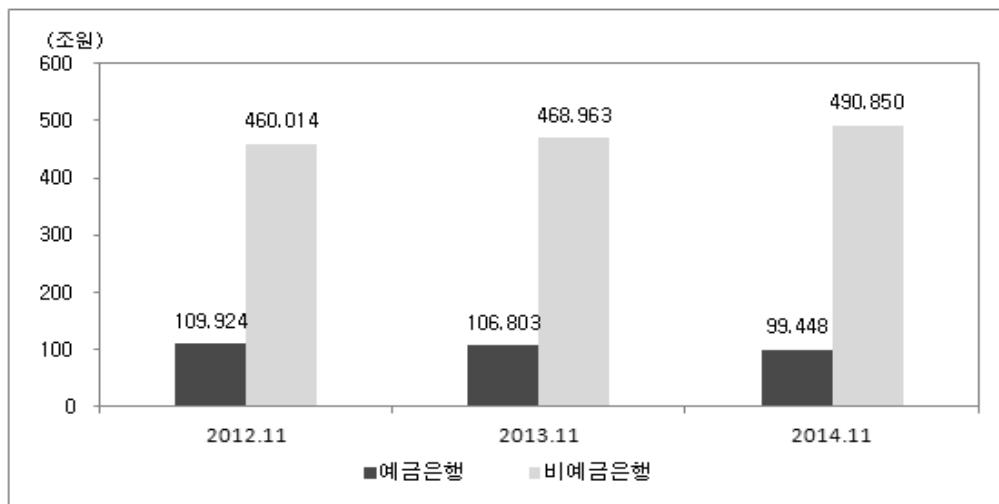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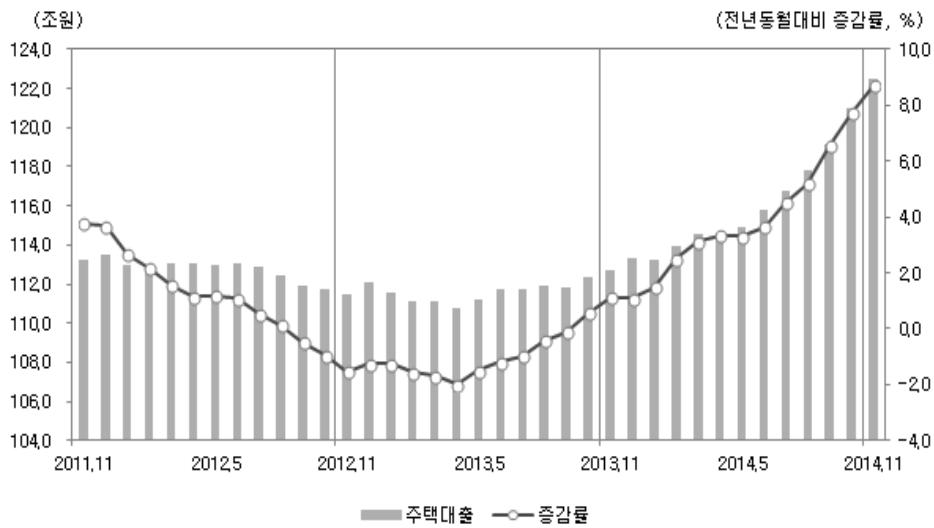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11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1.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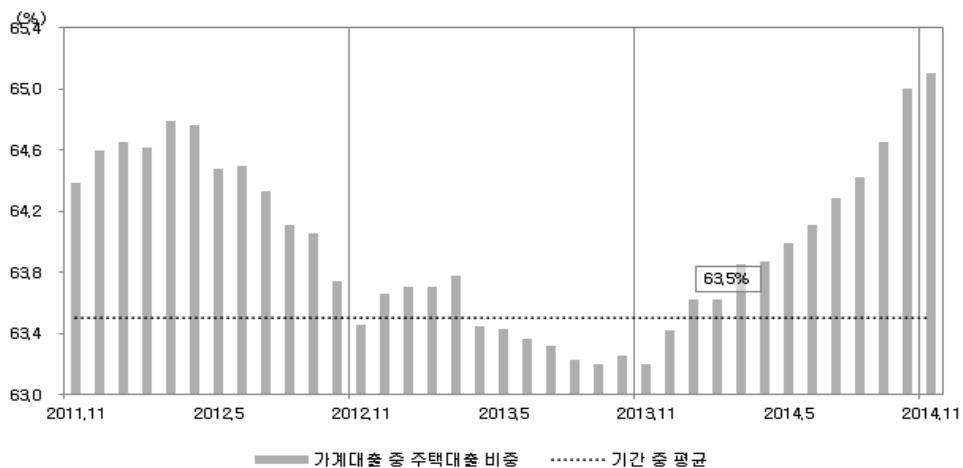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188조 2,034억원)은 전월(186조 2,062억원)대비 1.1% 증가
- 그 중 주택대출(122조 5173억원)은 전월대비 1.2% 증가, 전년동월대비 8.7%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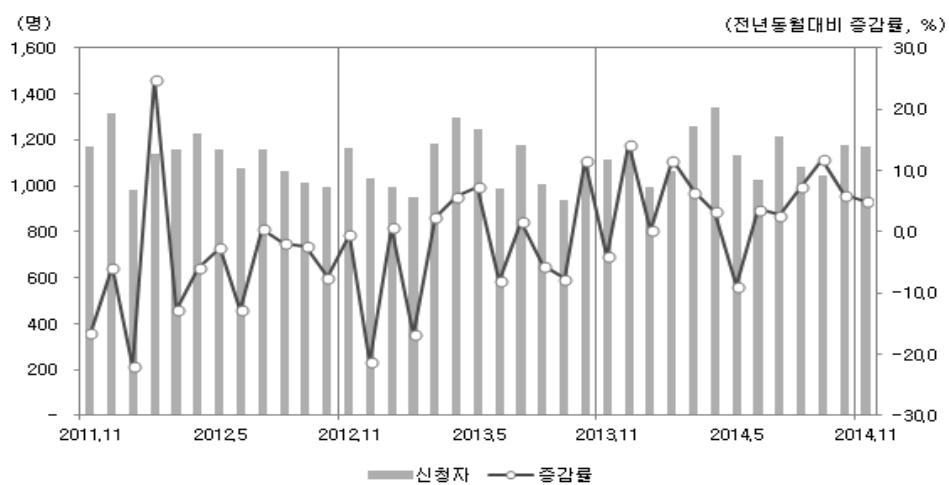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 11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감소

- 개인파산 신청자(1,171명)은 전월대비(1,176건) 5건(0.4%) 감소, 전년동월대비 5.0% 증가
- 개인파산 선고 전 기각 처리 건수(47건)은 전년동월대비 41.3% 감소. 개인파산 선고 전 기각률은 3.7%로 전월대비 0.7%p 감소. 11월의 면책 기각 처리 건수는 66건이고 면책 기각률(4.8%)은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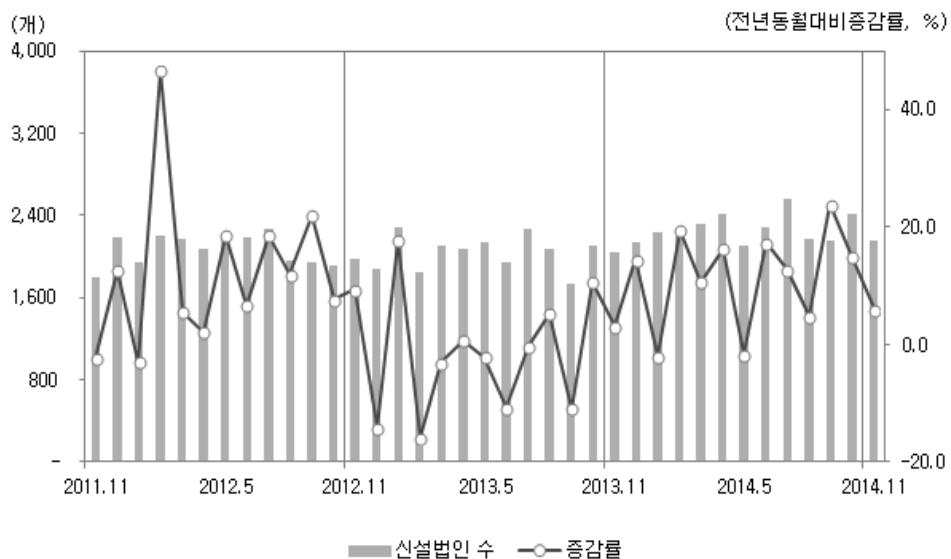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 신·설·및·부·도·법·인 |

■ 서울의 11월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감소,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155개로 전월(2,419개) 대비 10.9%(264개) 감소, 전년 동월(2,033) 대비 6% (122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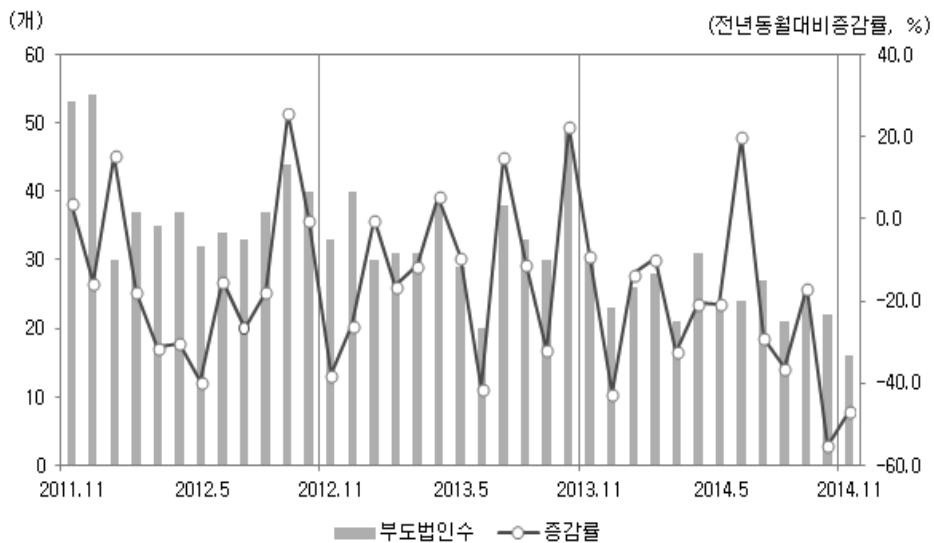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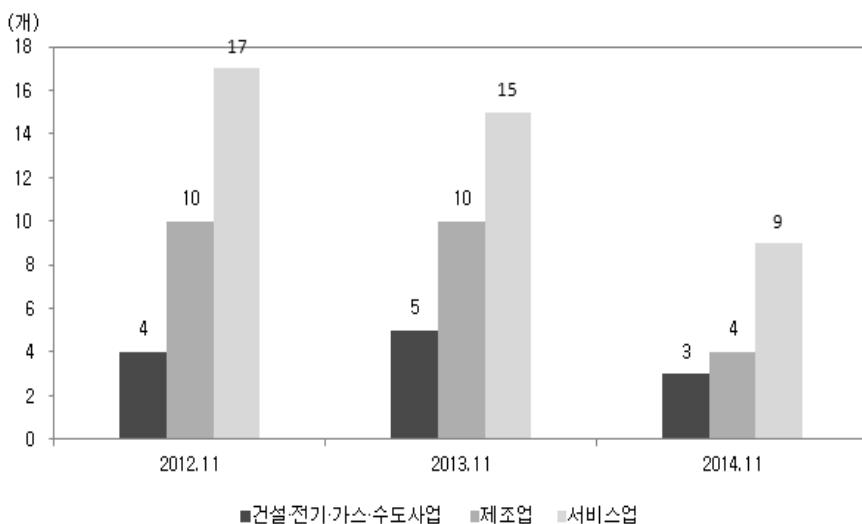
■ 서울의 11월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16개로 전월 22개 대비 6개(27.3%) 감소, 전년동월대비 14개 (46.7%) 감소
- 업종별 부도업체 수는 제조업 4개, 서비스업 9개, 건설 및 설비업 3개씩으로 각각 전월대비 60% 감소, 28.6% 증가, 25% 감소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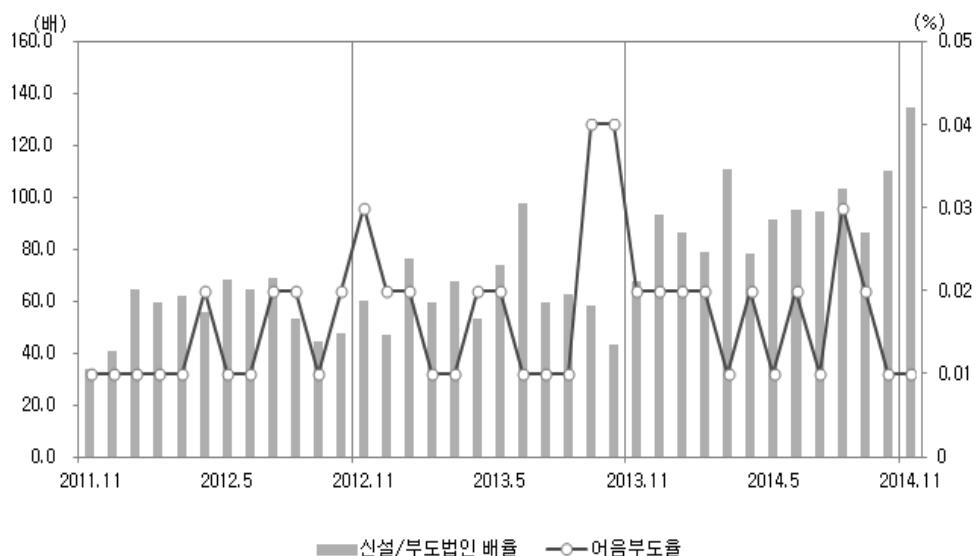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11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 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134.7으로 전월 110.0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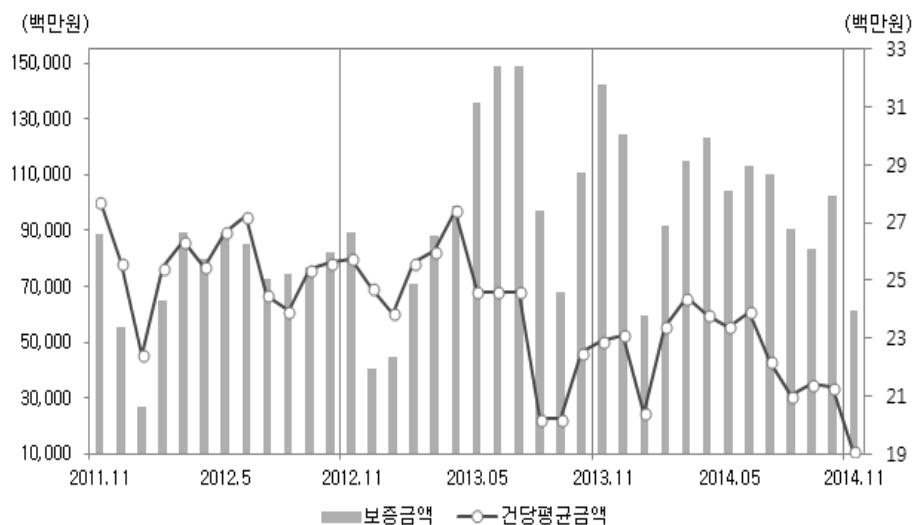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용·보·증 |

■ 서울의 11월 보증금액, 보증지원건수 전월대비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61,523백만원 / 3,227건
-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전월대비 각각 39.9%, 32.8% 감소, 건당 평균지원금액(19.1백만원)은 전월대비 10.3% 감소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56.8%, 48.0% 감소.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16.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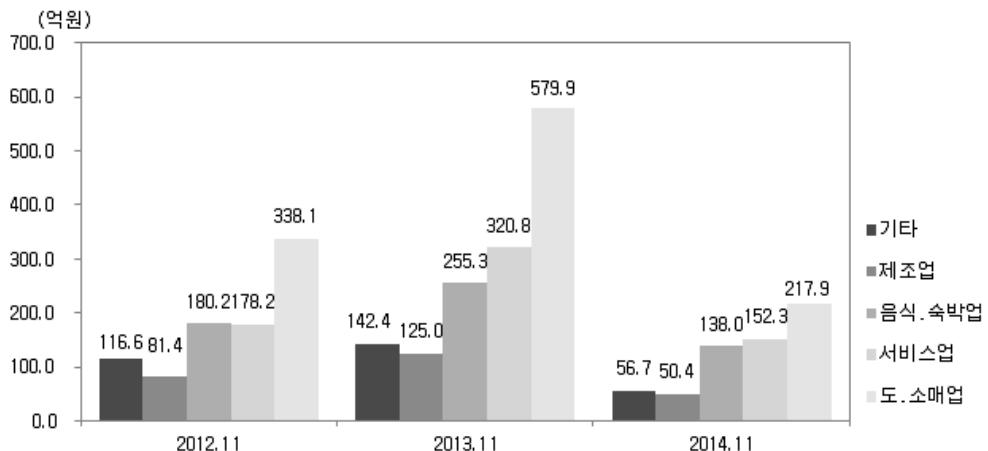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도소매업, 제조업 보증지원 비중 전월대비 감소, 도소매업 보증건수 비중 전월대비 감소한 반면 제조업 비중은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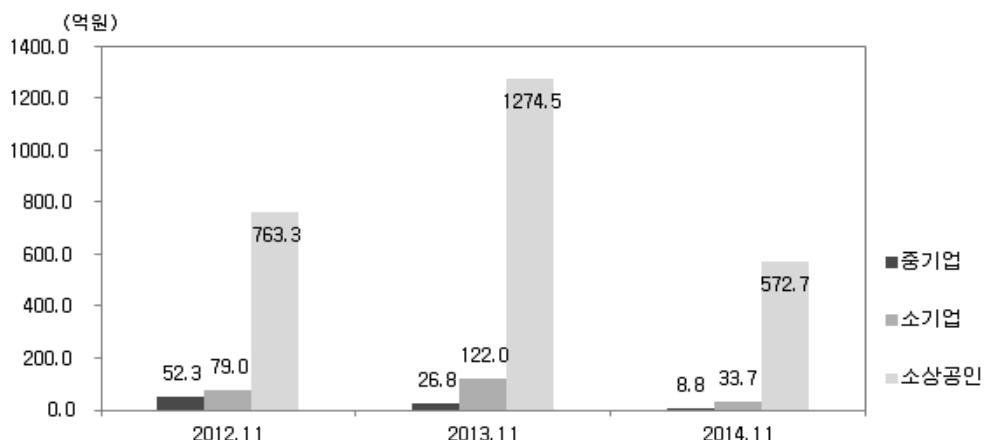
- 11월 중 도소매업에 대한 보증지원비중은 공급금액기준 35.4%로 전월(37.6%)대비 2.2%p 감소. 제조업에 대한 보증 지원비중은 공급금액기준 8.2%로 전월(8.3%)대비 0.1%p 감소
- 보증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도소매업이 32.3%로 전월대비(34.6%) 2.3%p감소, 제조업 비중은 6.8%로 전월대비(약 6.6%) 0.2%p 증가

- 11월 소상공인 지원금액비중 전월대비 감소. 소기업 지원금액비중 전월대비 증가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93.1%로 전월(94.2%)대비 1.1%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97.8%로 전월(97.8%)과 동일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5.5%로 전월(4.4%)대비 1.1%p 증가하였고, 보증 건수를 기준으로하면 2.0%로 전월(1.9%)대비 0.1%p 증가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1.4%로 전월(1.4%)과 보합 수준. 보증건수를 기준으로하면 0.2%로 전월(0.4%)대비 0.2%p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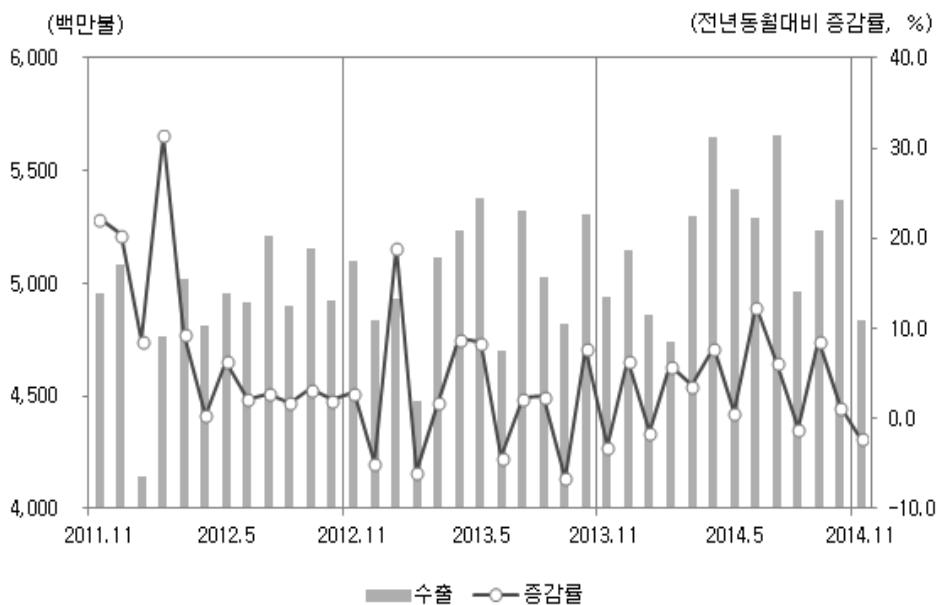
| 수 · 출 · 입 |

■ 서울의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48.3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하였고 수입은 112.9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67.5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하였고 수입은 413.6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4.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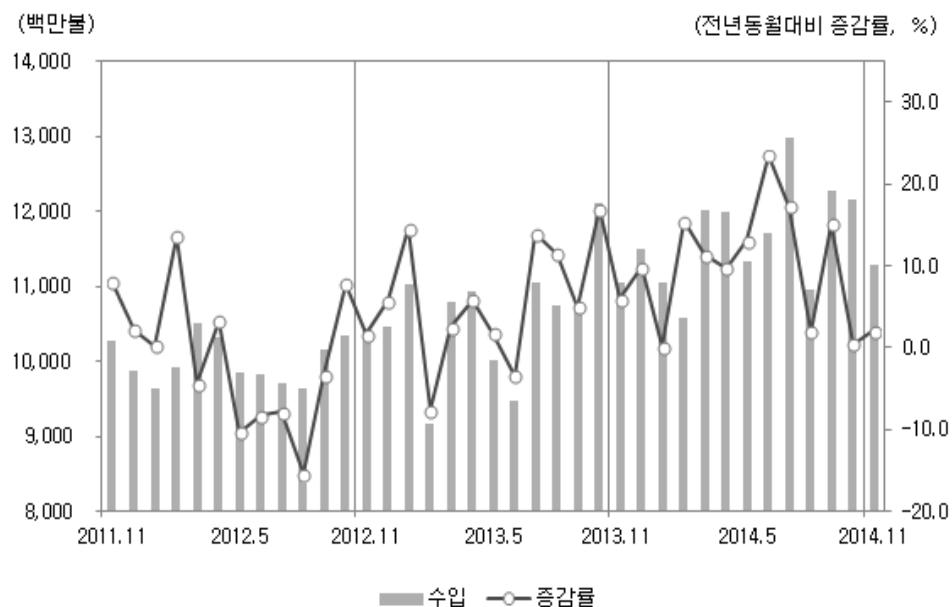
■ 서울의 11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자동차부품이 478백만 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합성수지, 반도체, 편직물,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842백만 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석유제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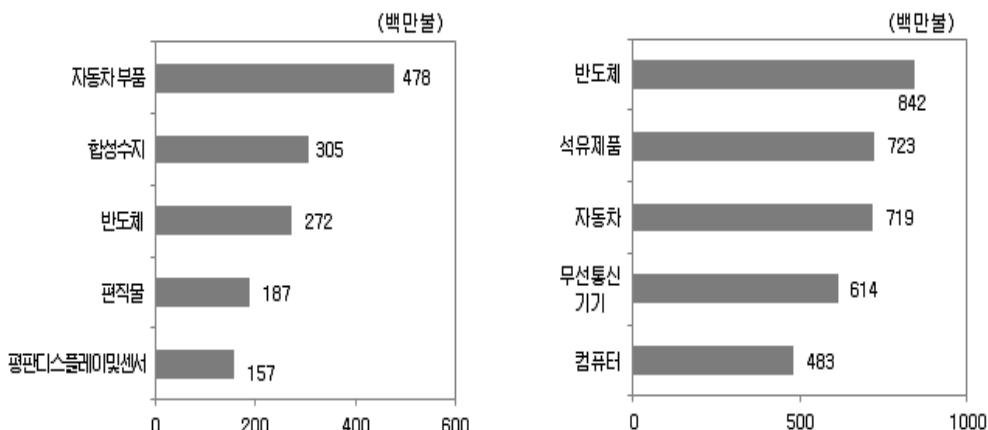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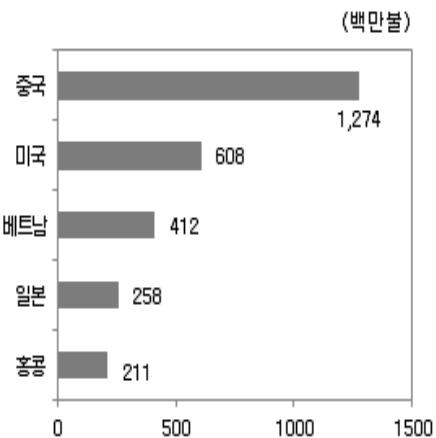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1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11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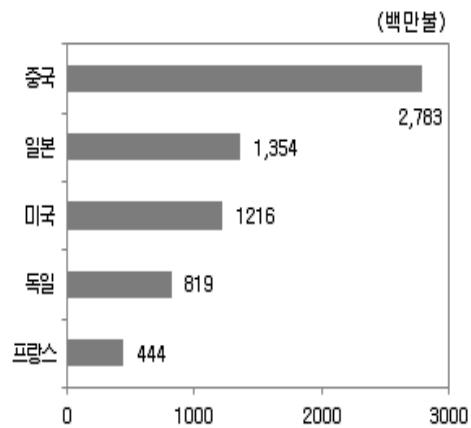
■ 서울의 11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3.7% 감소한 1,274백만불을 기록하여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역시,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한 2,783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순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1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11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 자 · 료 · 출 · 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10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10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10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관세청, 「2014년 10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국민은행연구소, 「2014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114, 「2014년 10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중소기업청, 「2014년 10월 중 신설법인 동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iba.go.kr>」

통계청, 「2014년 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4년 10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2014년 10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2014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SEOUL ECONOMIC BULLETIN

경제통통

FOCUS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조원 저리로 응자지원한다

ZOOM IN

- 될 성부른 청년창업기업 민간투자사와 연결해준다

HOT ISSUE

- 서울시 기술교육원, 무료 직업훈련생 3,617명 기술전문가로 키운다
- 마을경제 활성화 도와줄 마을기업 25개 선정, 밀착지원 펼친다

김가영(서울시 경제진흥실 gykim@seoul.go.kr)

|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 1조원 저리로 응자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민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을 저리로 지원한다. 특히 신속한 경제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 육성자금 중 60%에 해당하는 6,000억 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해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트워 일자리 창출은 물론 조속한 경기회복을 돋겠다는 계획이다.

· 시설 1천억원 · 경제활성화 6,850억원 · 창업기업자금 1천억원 등 다각도 지원

올해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억 원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1,000억 원 ▲ 재해피해기업 자금 200억 원 ▲ 경제활성화 자금 6,850억 원 ▲ 일반 창업기업 자금 1,000억 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자금 100억 원 등이다.

· 시설자금 3.5%·영세자금 3%로 금리 조정, 전년대비 0.5% ↓, 저금리 기조 반영

금리는 시중 저금리 기조를 반영,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시설자금과 영세자금 금리를 지난해보다 각각 0.5%씩 인하한 시설자금 3.5%, 영세자금 3.0%로 조정했다. 시중은행협력 자금의 이차보전 금리는 1~2.5%로 책정했다.

· 영세자영업자 자금 300억으로 증액, 초기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500억 신규 편성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 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을 전년보다 100억 원이 늘어난 300억 원을 지원 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계형 업종에 집중하고, 기술력은 갖췄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립 초기 기술형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도 신규로 500억 원을 편성해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를 동시에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가능성도 열어둬 내수경제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유동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지원 기조도 유지한다.



| 될 성부른 청년창업기업 민간투자사와 연결해준다

서울시가 벤처투자사 및 엔젤투자자와 손잡고 우수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에 투자금을 지원, 성공창업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진행한다. 젊은 창업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민간과 협업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신생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탄탄한 창업투자생태계 기초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서울창업기업 투자설명회 3월 개최, 참여희망기업 모집

서울시는 오는 3월 중순, 우수 청년기업과 민간투자기관을 연계해 자금을 지원하는 「2015 서울창업기업 투자설명회 :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투자 연계형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설명회 당일 창업기업들은 민간투자자 앞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해 투자를 유치하고, 서울시와 투자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투자지원을 약속한다.

· VC대표·엔젤 등 민간투자사가 전문성·시장성 등 평가, 10팀 설명회 참가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월 13일까지 접수하면 되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되도록 투자의향을 밝힌 민간투자사 대표 8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 경영진의 전문성 ▲ 기술성 ▲ 시장성 ▲ 사업성 ▲ 사업아이템의 수익성 등의 항목을 평가해 현장에서 즉시 투자의향금액을 제시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팀은 전문가로부터 집중컨설팅 등을 거친 후 3월 중순 투자설명회 당일 사업설명서를 발표한다.

· 투자의향 금액 상위 5개팀은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입주, 서비스와 창업자금 지원



또 민간투자사로부터 투자의향금액을 많이 제시받은 상위 5개 팀은 서울시 청년 창업플러스센터에 1년간 입주해 전문가 컨설팅 등 서울시 창업지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되며, 해외진출 지원 및 제품 상용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업자금(팀당 1000만원)도 지원받게 된다.



함께 서울 창업지원과

서울의 힘의 새재인 함께 서울

| 서울시 기술교육원, 무료 직업훈련생 3,617명 기술전문가로 키운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이 기술전문가로 거듭날 상반기 직업훈련생 3,617명을 2월 20일까지 동부·중부·북부·남부 4개 기술교육원에서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모집에서는 정규과정(주간 1년, 야간 6개월) 2,917명과 베이비부머, 재직자 등 단기과정 700명 등 총 3,617명의 훈련생을 선발하며 만 15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국가기간산업 플랜트용접 및 베이비부머위한 조경관리학과 신설, 청년과정도 모집

특히 올해는 국가기간·전략산업인 ‘플랜트용접과정’과 베이비부머 세대가 쉽게 취·창업 할 수 있는 ‘조경관리학과’를 신설했고, 패션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션산업기사과정’도 개설해 역량있는 인력으로 키울 계획이다.

또 ▲그린카정비 ▲네트워크서버운영관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등 청년희망디딤돌과정에서도 만 15세~35세 청년 245명 모집한다.

· 정원 30% 저소득층 우선선발, 훈련비 무료, 자격증 취득·취·창업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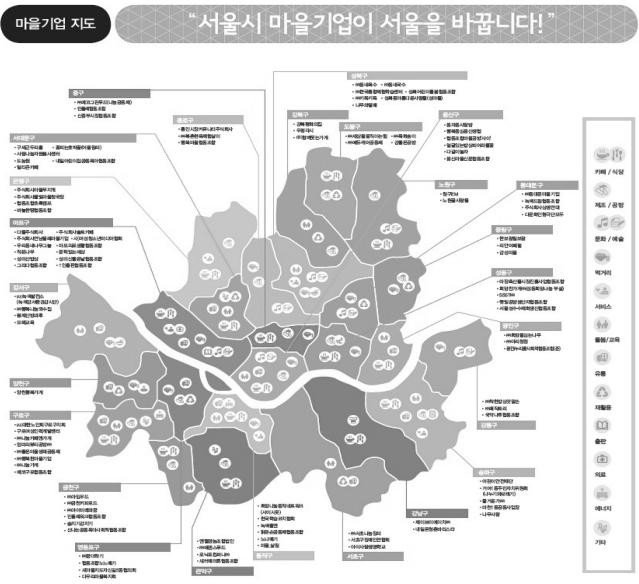
응시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선발되면 수강료, 교재비, 실습비 등 교육훈련비는 무료다. 이외에도 자격증 취득도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원, 인문학교육·교수기업전담제·기업채용약정 등 교육내실과 취업률 높이는 중

현재 서울시기술교육원에서는 직업 훈련 외에도 인문학교육, 전문직업상담사 취·창업상담은 물론 교수가 관련분야 우수 기업을 직접 발굴해 졸업 후 바로 해당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돋는 교수기업전담제와 기업채용약정으로 교육내실도 기하고 있다.



| 마을경제 활성화 도와줄 마을기업 25개 선정… 밀착지원 펼친다



서울시가 지역공동체를 재생하고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마을경제 활성화를 도와줄 마을기업 25개를 선정해 밀착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에 지원할 금액은 총 8억 3700만원.

사업비는 기업별로 첫해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2년차 연장지원기업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사업비 신청 전 서울시 지정기관에서 사전교육 필수 이수, 2.3(화)수강신청가능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기업·공동체는 신청 전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기업사업단’이 주관하는 사전교육인 씨앗기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마을기업들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원가분석, 홍보마케팅 등의 과목을 신설했으며, 이외에도 마을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선배 마을기업의 운영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전교육 수료 후엔 3월 9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해당 자치구 마을기업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 마을기업 안정적 운영가능하도록 지역경제기반확충, 판로지원 사업 본격 추진

한편 서울시는 올해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시 지역 사회에 안착해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판로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빈틈없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과
시민과 함께 세계의 문화